

신입사원 실질적인 영어실력 겨우 **C학점** 수준

‘실질적인 실력향상을 위한 GST’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주요 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신입직원 영어능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3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읽기 만족도가 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쓰기 72점, 듣기 74점, 말하기 69점 순이었다.

‘100점 만점에 73점.’ 국내 기업들이 신입사원 영어능력을 평가한 결과다. 대학 학점으로 치면 C에 불과하며, 말하기는 거의 과락 수준이었다.

기업 66%는 채용 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고 있으며, 53%는 구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채용할 때 영어면접, 지필고사 및 그룹 토론 등 자체 영어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어온 토익 류의 지필시험의 고득점자가 구술 능력이 떨어지고 점수와 실제 영어 구사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업들이 영어구술능력이 경쟁력임을 인식하여 지필 시험을 대체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용 때부터 구술시험 성적 제출을 공식화한 것은 이후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채용에서의 영어구술능력의 중요성을 선언한 것으로 기업에서의 영어구술능력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앞으로 대기업 공사 채용에서 더욱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영어 회화 능력은 이제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이다. 많은 기업채용 시험에서 공인영어구술시험 성적 제출을 공식화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G-TELP SPEAKING TEST는 G-TELP 4,3,2,1등급이 혼합된 하나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말하는 능력이 다소 낮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부터 다양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능통한 영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말하는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 해 준다. 또한 수험자의 말하는 능력을 표현력(Content), 문법(Grammar), 어휘(Vocabulary), 발음(Pronunciation), 유창도(Fluency)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평가결과를 개량화, 수치화함으로써 수험자의 강·약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교육·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준다.

“RATER TRAINING PROGRAMS (채점자교육프로그램)”은 20여 년의 오랜 평가경력, 조사연구, 비교분석, 교육을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최상의 실전 평가자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그 신뢰성과 엄격성, 일관성을 바탕으로 세계에 수출 보급되고 있으며, 채점자에 대한 엄격한 훈련과 심사, 채점자 공인 과정을 거쳐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동일한 기준으로 “G-TELP(구술), ICAO항공구술시험” 채점자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 즉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종사자들의 영어구술, 말하기 능력을 평가 증명하는 영어구술평가시험, ICAO 항공영어구술자격시험은 국제적으로 Cambridge Michigan ETS ACTFL IELTS 그 어느 평가기관보다도 G-TELP KOREA가 단연 앞서나가고 있다. G-TELP KOREA에서는 앞선 항공전문영어구술능력 평가시험 방법, 툴(TOOL)개발, 온, 오프라인 시험 시스템(Solution)을 여러 나라에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저개발국인 몽골 북한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 항공영어구술시험을 보급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지원 보급하고 있다.

영어활용능력이 사업의 성패와 회사 이미지를 좌우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일찍이 1990년대부터 채용과 승진에 G-TELP 시험을 채택 활용하고 있다. 이는 채용, 인사고과에서의 영어구술능력의 중요성을 선언한 구체적인 사례들로서 기업에서의 영어구술능력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